

호남 유권자들 “민주당, 실질적 지역공약 내놔야”

대선 주자 광주·전남 방문 잇따라
압도적 지지에도 ‘홀대’ 민심 싸늘
李 독주 구도 속 지역 민심 시험대
“공약 실행력·진정성 제대로 평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오는 26일 광주에서 열리는 호남권 순회경선을 앞두고 일제히 광주·전남 방문에 나서며 본격적인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의 경우 권리당원이 35%에 육박하면서 향후 수도권 판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 구도를 사실상 가를 최대 분수령으로 평가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오랜기간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지역 유권자들은 말보다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진짜 호남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민심은 민주당에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과제를 안기고 있다.

22일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경수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도당에서 당원 간담회를 가진 뒤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시민들과 만났다. 오후에는 민주당 광주시당을 찾아 광주·전남 당원과 대화를 나눴다.

김 후보는 “힘들고 어려운 지역의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홀대론이나 소외론이 나오지 않는 나라,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24일 전북 김제시 새만금을 찾아 ‘건강한 미래에너지’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

회를 개최한다. 오후에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상징적 장소인 광주 전일빌딩245를 방문해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을 주제로 민주주의 간담회를 연다. 25일엔 나주에 위치한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미래농업 전조기지 호남’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후보는 이번 일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의료 격차 해소, AI 산업 육성 등 구체적인 호남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후보는 전남이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에너지 대전환 전략’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공언해왔으며, 기본소득과 전남 국립의대 신설,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반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서해안 RE100 라인 조성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활성화를 위

한 빅딜 △호남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호남 지역 맞춤형 공약을 공개했다. 김 후보 역시 24일부터 사흘간 광주와 전남 각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인권 가치를 알린 지역이나, 우리 정치가 호남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사이 호남의 미래는 뒤로 밀려났다”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호남의 앞날을 변화시킬 비전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또한 지역 현안과 미래 발전을 위한 대선공약 발굴 및 반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AI 순환경제 기반 ‘더브레인’ 모델시티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분산에너지 허브 구축 등 15대 과제, 40개 사업, 총 81조원 규모의 공약을

민주당에 제안한 상태다.

전라남도는 △국립의대 설립 △여수산단·광양만권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 △해남솔라시도 중심의 AI 슈퍼클러스터 조성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 △해상풍력 송전망 국가 주도 건설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 20건의 핵심 과제를 요청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쏟아지는 지역 공약 속에서, 광주·전남 유권자들은 이제 실행력과 진정성을 더욱 냉정히 따지고 있다.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이모씨는 “경제가 코로나19 때보다 어렵다. 빠른 회복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라도 ‘시작’은 해야 한다. 정권교체는 동의하지만 말뿐인 약속은 그만이다.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낙후된 호남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오지현·정성현 기자**

신안에 20조 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

정부 지정...10개 단지 3.2GW 규모
김 지사 “에너지산업 수도 도약”

전라남도 신안에 아시아·태평양 최대이자 세계 2위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된다.

2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공고했다.

신안 해상풍력 단지는 총 10개 단지, 3.2GW 설비용량으로 조성되며, 총 2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진다. 이 설비용량은 원전 3기에 맞먹는 수준이다. 전라남도는 이 단지를 계기로 여수·고흥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 13GW를 포함, 전남 전역에 총 30GW의 해상풍력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

보한 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는 구역이다. 공동접속설비 등 기반 인프라가 함께 구축돼 사업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전라남도는 송전망 확충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을 포함한 ‘전력계통협의체’를 구성해 송·변전설비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 해상풍력으로 확보 가능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수익도 연 245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를 통해 도민과의 이익 공유는 물론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달성도 추진한다.

김영록 지사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단에 터빈·블레이드·하부구조물 제조기업 100개를 유치하고, 2500여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전남이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수도,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2일 전라남도 도청 브리핑룸에서 해상풍력집적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무등산을 걷자

제19회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

5월 24일 오전 8시30분

전남일보가 ‘제19회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를 갖습니다.
광주광역시·화순군·담양군에 걸쳐 있는 무등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산행은 문빈정사 광장을 출발해 자율 산행으로 진행되며,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정화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무등산의 추억’을 담아가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 행사명	제19회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	● 참여방법	홈페이지(www.jnilbo.com) 접속,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일시	2025년 5월24일(토) 오전 08시30분	● 문의	062) 519-0730~1
● 장소	문빈정사 앞 광장 (집결)	● 주최주관	전남일보·전일엔컬스
● 신청기간	2025년 4월22일(화) ~ 5월19일(월)	● 후원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
● 인원	300명 선착순 접수		화순군·담양군
● 참가자 전원 기념품 제공			전남대무등산권지질관광사업단